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1



▶ 52회 예고
아쇼까는 숫빠라까에 군사를 훈련시킬 경비조장을 남겨 두고 떠난다. 순행은 대성공이었다. 아쇼까 일행은 웃자인 성민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는다. 왕궁에 들어선 아쇼까는 데비 부인이 딸 상가밋따를 잉태했음을 알고 더욱 기뻐한다.

바히야, 가장 짧은 법문에 아라한 되다

바다안개가 몰려와 달을 덮었다. 보름달 둘레에 둥그런 달무리가 졌다. 청동화로 잉걸불이 벌겋게 이글거렸다. 세 사람은 차가워진 밤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하인들이 간간이 짜이를 따랐다. 짜이에서는 재스민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비베깐난다 사문의 긴 이야기를 듣고는 놀랐다. 숫빠라까 상인 출신인 뿐나가 고타마 붓다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숫빠라까에는 지금도 사바르마티강 강변에 뿐나라마 터가 있는데, 왜 뿐나라마인지도 알았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물었다.

"붓다를 뵙기만 하면 아라한이 됩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문들은 지금도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아, 고타마 붓다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타마 붓다께서 가르침을 남겨 놓았으니 참으로 다행이지요. 붓다께서도 열반 전에 자기 자신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베깐난다 사문이 대답하는 사이 데바가 일어났다. 데바 맞은편에서 경비대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데바가 말했다.

"순찰을 도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부왕님께서 여기에 누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왕님께서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신 줄 몰랐소. 우리는 사문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소."

경비대장이 돌아서자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짜이 한 잔 하고 가십시오."

"부왕님께 보고 드리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아쇼까와 경비대장이 나타났다. 두 사람 뒤로는 무장한 경호군사 네댓 명이 뒤따라왔다. 경비대장이 손짓을 하자 경호군사가 가까이 오지 않고 황금야자수 뒤쪽으로 가서 보초를 섰다. 새로 가지고 온 청동화로 속의 숯덩이들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열기가 아쇼까에게 훅훅 끼쳤다. 아쇼까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말했다.

"사문의 얘기를 나도 듣고 싶어 왔소."

아쇼까는 불교에 귀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한때 스승이었던 묵갈리뽓다띳사, 꼬삼비에서 만난 순례 수도승 우빠굽따, 산치 절에 머물다가 빠딸리뿌뜨라로 간 담마팔 등도 모두 사문이었던 것이다. 비베까난다 사문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방금 이곳 출신 뿐나 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나 존자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는 이제 없습니다."

"부왕님께서 오셨으니 뿐나 존자 말고 이곳 출신 사문은 없습니까?"

"사문은 없습니다. 다만, 숫빠라까에서 살다가 고타마 붓다의 말씀을 듣고 단박에 아라한이 된 장사꾼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단박에 아라한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사꾼 바히야 다루찌야는 붓다를 친견한 뒤 바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나 데바는 장사꾼 바히야 다루찌야가 어떻게 한 순간에 아라한이 됐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억누르며 아쇼까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장사꾼이 아라한도 될 수 있는 것이오?"

"아라한이 되는 데는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소승이 기억나는 대로 바히야가 어떻게 아라한이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아쇼까를 의식했음인지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바히야가 걸인이 된 사연부터 이야기했다. 달무리는 좀 전보다 더 크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비베깐난다 사문이 읊조리듯 입을 열었다.

"장사꾼들이 항해하다가 불행하게도 큰 파도를 만났지요. 그리하여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장사꾼들은 하나 둘 죽어갔지요. 그때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판자를 붙들고 있었지요. 그는 나무
판자를 붙잡고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숫빠라까 항구에 닿았습니다."

구사일행으로 숫빠라까 항구에 나타난 장사꾼이 바로 바히야였다. 그런데 '바히야'란 원래 이름에 '다루찌야'가 붙은 사연은 이러했다. 숫빠라까 거리에 나앉은 그는 알몸뚱이였다. 해엄을 치기 위해 거추장스런 옷을 바다에 다 버렸던 것이다. 바이야는 나무판자로 자신의 그곳을 가린 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나아가 앉았다. 사람들은 바이야가 나체 수행자인 자이나교 구루인 줄 알고 그릇에 쌀이나 죽을 주었다. 그러면서 나체수행자 같은 바히야를 칭송했다.

"저 구루는 아라한일 거야."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자이나교 무소유 수행자가 분명해."

어떤 사람은 바히야에게 새 옷을 구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바히야는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쌀이나 죽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바히야는 옷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주어버렸다. 그러면서 바히야는 자신이 정말 본래는 아라한이 아닐까 하고 착각했다. 자신의 그곳을 나무판자로 가리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합장하며 존경을 표시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바히야를 존경하여 바히야 다루찌야라고 불렀다. 다루찌야란 '나무 옷을 입은' 이란 뜻이었다.

그런데 마하브라흐마(mahā-brahman)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는 바히야를 발견하고는 몹시 안타깝게 여겼다. 바히야가 전생친구였기 때문에 타락한 그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감이 들었던 것이다. 마하브라흐마는 밤중에 바히야를 찾아가 충고했다.



"바히야여, 네가 아라한이라고? 너는 아라한이 되려고 어떤 수행도 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러자 바히야가 전생친구 마하브라흐마에게 말했다.

"그래, 나는 아라한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 온 것도 사실이지. 그런데 마하브라흐마여, 나는 지금까지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 말을 믿는다면 아라한이 계시는 곳을 알려주지."

"마하브라흐마여, 나를 찾아온 친구의 말을 믿고말고. 알려준다면 나는 바로 그분께 달려서라도 갈 거네."

이에 마하브라흐마가 말했다.

"꼬살라국 사왓티에 고타마 붓다가 계신다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아라한이시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라네."

비베깐난다 사문이 차가운 밤공기를 깊이 들이키다가 기침을 했다. 그러더니 짜이로 목을 진정시킨 뒤에야 기침을 멈추었다. 아쇼까는 물론이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데바 모두가 비베깐난다 사문의 입을 주시했다.

"그제야 바히야는 자신의 타락을 깨닫고 고타마 붓다를 친견하기 위해 꼬살라국 사왓티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때 마하브라흐마는 신통력으로서 바히야를 도와 120요자나 되는 거리를 단 하룻밤 만에 갈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바히야 다루찌야는 전생친구 마하브라흐마의 도움으로 아침 일찍 사왓티에 도착했다. 때마침 고타마 붓다는 사왓티 거리로 나와 탁발을 하고 있었다. 바이야 다루찌야는 한눈에 고타마 붓다를 알아보고 뒤를 따랐다. 그러다가 틈을 보아 바히야 다루찌야는 "고타마 붓다시여,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그러나 고타마 붓다는 탁발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바히야 다루찌야는 고타마 붓다에게 더욱 다가가서 애원했다.

"붓다시여, 저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고타마 붓다는 바히야 다루찌야가 120요자나 길을 단숨에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몹시 흥분해 있는 그를 보고는 그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런데도 바히야 다루찌야는 계속해서 끈덕지게 법문을 간청했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는 할 수 없이 선 채로 법문했다.

"바히야여, 네가 어떤 것을 볼 때 보고 있는 그 자체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거라. 네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도 듣는 그 자체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거라. 네가 어떤 냄새를 맡을 때에, 혹은 어떤 음식을 맛볼 때, 무엇을 만질 때, 또 네가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에도 너는 항상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거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마음의 대상일 뿐임을 알아 거기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이나 싫어함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타마 붓다의 짧은 법문을 듣자마자 바히야 다루찌야는 즉시 아라한과를 얻었다. 기적 같은 변화였다. 곧바로 바히야 다루찌야는 고타마 붓다에게 비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타마 붓다는 조건을 달아 허락했다.

"비구가 되고 싶으면 가사와 발우를 비롯한 물품들을 준비해 오거라."

바히야 다루찌야는 바로 물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고타마 붓다 곁을 떠났다. 그러나 바히야 다루찌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던 암소에 밟혀 죽고 말았다. 바히야 다루찌야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바히야 다루찌야에게 전생부터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귀신이 암소로 변신해 있다가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고타마 붓다와 비구들은 탁발을 끝내고 제타와나로 향하다가 바히야 다루찌야가 쓰레기더미 위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타마 붓다는 비구들에게 그를 아라한에 합당하게 화장할 것과 그의 유골을 탑에 안치하라고 말했다. 제타와나로 돌아온 뒤에야 그 이유를 비구들에게 밝혔다. 바히야 다루찌야가 길 위에서 법문을 듣고 즉시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러자 비구들은 어떻게 단 몇 마디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에 고타마 붓다가 말했다.

"아라한과를 얻는 것은 법문을 듣는 횟수와 관계가 없느니라. 아주 짧은 단 한 차례의 법문일지라도 듣는 이에게 참으로 유익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라."

고타마 붓다가 더 이해하기 쉽게 비구들에게 게송을 읊었다.

열반을 이루는 것과 관련 없는
일천 편의 의미 없는 게송을 듣기보다는
단 한 편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게송을 듣는 편이 훨씬 낫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감동한 나머지 몸을 떨었다. 뿐나 존자와 늙은 장사꾼 바히야 다루찌야가 숫빠리까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이 마구 솟구쳤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비베까난다 사문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발원했다.

'숫빠라까 출신인 뿐나 존자를 기리는 뿐나라마를 복원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설법을 듣고 가장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된 바히야 다루찌야도 추모하겠습니다.'

데바 역시 숫빠리까 상인수장처럼 감동이 치밀어 올라 달무리를 쳐다보며 마음을 진정했다. 그러나 아쇼까는 바히야 다루찌야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고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러면서 짜이가 담긴 잔을 코끝까지 들어올렸다. 아쇼까는 짜이에서 나는 재스민 향에 동물처럼 코를 큼큼거렸다. 〈계속〉

간화선 실참의 터전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